

2026 시니어선교한국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사

사랑하는 시니어선교한국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 주신 감사님들과 스태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글로벌 컨퍼런스의 주제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 하늘의 가치로 정렬되는 삶”**이라는 부제를 정했습니다.

‘정렬(Alignment)’은 흐트러진 방향을 본래의 기준에 맞추어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역과 일정, 정보와 필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교 역시 해야 할 일과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교의 중심이신 하나님보다 사역 자체만을 바라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히 새로운 선교 정보나 방법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방향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 모임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시니어선교한국 총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명선언문과 공동체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니어선교한국은 **하나님의 선교, 곧 Missio Dei**에 응답하여 시니어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는 선교 운동입니다. 인생 후반기는 단순한 쉼이나 은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헌신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륜과 지혜와 삶의 깊이는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열방을 섬기도록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네 가지 방향으로 고백했습니다.

첫째, 시니어 세대를 제자로 세우고,

둘째, 선교적 삶으로 파송하며,

셋째, 교회와 선교 현장을 섬기고,

넷째, 다음 세대를 신앙과 사명의 유산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강령을 통해 그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멈추어 기도하고 분별하며, 성과와 숫자와 규모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지 않도록 경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연륜과 경험을 결정권이 아니라 섬김의 자원으로 사용하고, 여전히 배우는 자로 서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결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모든 결정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는 이러한 고백을 실제 삶과 사역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중요한 실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와 방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선교의 실재와 현장, 시대적 이슈와 방법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와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정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향해야 길을 잃지 않듯이, 우리의 삶과 선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렬될 때 비로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다섯 번의 메시지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에**”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과 명을 함께 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가치로**”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가치를 살아내는 신부의 삶**”입니다. 하늘의 가치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렬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사역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2월 총회에서 우리가 고백한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시니어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시니어 세대를 선교적 삶으로 파송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선교적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선교 현장을 섬기려면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연결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컨퍼런스는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인 동시에, 그 사명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시며,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다시 살피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필요하다면 멈추어야 할 것은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컨퍼런스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도,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선교한국 가족 여러분,

지난 2월 우리는 사명을 선언했고, 공동체 강령을 통해 그 사명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낼 것인지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그 고백이 문서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선교 현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2박 3일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선교가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정렬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후반기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전환점과 새로운 헌신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이종훈 선교사

강사 : 정현구 목사 (시니어선교한국 이사장)

본문 말씀

(마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레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I. 참된 거룩과 온전을 향하여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거룩(카도쉬)'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신분적 상태라면, 신약의 '온전함(텔레이오스)'은 창조 목적을 성취한 성숙한 완성을 뜻합니다. 영미권 신학의 격언처럼 "Holiness is Wholeness(참된 거룩은 온전함)"입니다. 거룩은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통합되는 전인적 온전함입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의 연륜을 지닌 시니어 세대조차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영적 피로와 무기력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열심의 부족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스며든 왜곡된 신앙의 짐이 우리를 짓눌러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려면 먼저 이 세 가지 왜곡의 짐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II. 세 가지 벗어나야 할 짐과 저야 할 참된 명에

1. 유대주의적 왜곡 → 이타적 선택과 선교적 영성 (밖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부정을 피하려 수천 개의 세척을 만들고 이웃을 정죄하는 배타적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목적은 열방을 구원할 '복의 통로(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으나, 그들은 선택을 배타적 기득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피해 숨지 않고 나병환자와 세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닿는 순간 부정이 옮겨붙은 것이 아니라, 정결과 생명이 전달되는 '거룩의 역전 전염'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거룩은 도피가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는 안도를 넘어 열방을 품는 선교적 영성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명에입니다.

2. 헬라주의적 왜곡 → 통치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 영성 (위를 향하여)

헬라 철학의 영육이원론은 "영은 거룩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세 교회는 이를 받아들여 성당과 사제는 거룩하고 일터와 평신도의 노동은 속되다는 거룩의 계급화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거룩이 장소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라는 주권의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탈속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삶의 현장에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땀 흘리는 매일의 일상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나라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롬 12:1).

3. 세속주의적 왜곡 → 다양성과 연합의 삼위일체 영성 (안을 향하여)

현대 사회는 '자아의 우상화'에 빠져 신앙마저 기복주의(거룩의 상업화), 값싼 힐링(심리주의), 개인주의적 분열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복음의 대안은 '삼위일체 영성'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시면서(다양성)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십니다(상호내주, 페리코레시스). 그리고 그 사랑을 창조와 성육신이라는 구원의 섬김(디아코니아)으로 쏟아내셨습니다.

- **타자 환대:** 다름을 정죄하지 않고 선물로 받습니다.
- **코이노니아(사귄):**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합니다.
- **디아코니아와 미시오(섬김과 선교):**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러 나아갑니다.

III. 통합적 영성을 향한 시니어의 결단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거친 밭을 갈 때 힘센 '어미 소'와 미숙한 '어린 송아지'를 한 멍에에 묶습니다. 쟁기의 저항과 바위의 무게는 힘센 어미 소가 다 감당하고, 송아지는 그저 보폭을 맞추어 걸어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이와 같습니다. 사역과 인생의 짐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쉼과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영성을 품고 인생 후반전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 [밖을 향하여] 평생의 경험을 드리는 '선교적 영성'을 품으십시오.

교직, 경영, 행정, 의료, 기술, 자녀 양육 등 평생 축적한 지혜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자산입니다. 이를 노년의 안락함 속에 묻어두지 말고,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섬김의 자원으로 아낌없이 흘려보내십시오.

- [위를 향하여] 일상의 삶에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영성'으로 사십시오.

거룩은 교회당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식탁과 일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나이 들이 쇠퇴가 아니라 탐스러운 과일처럼 성숙해지는 것임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 [안을 향하여] 다름을 포용하고 섬기는 '삼위일체 영성'으로 연합하십시오.

나와 배경과 성향이 다른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내 이름을 남기기보다 다음 사람을 세워주는 디아코니아의 사람이 되십시오.

밖을 향해 열방을 품고, 위를 향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안을 향해 사랑으로 연합하십시오. 이 은혜의 멍에를 멜 때,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가장 찬란하고 풍성한 선교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Note



강사 : 금수화 목사 (시니어선교한국 훈련원장)

“Z 강의 개요 (Overview)

- 핵심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 주요 메시지: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내가 주님이 되어 무엇을 이룰 것인가(Doing)’의 열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Looking)’라는 시선의 교정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힘(Being)에서 시작됩니다.

1. 본문 제시: 시선의 방향 점검 (What does the text say?)

골로새서 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 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 시느니라”*

- 질문의 전환: "하나님, 남은 삶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 까?"라는 질문 이전에,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 [도입 예화] 원숭이의 불공정 비교 실험:

2. 본문 해석: 보좌 우편의 통치성 (What does it mean?)

- 위의 것 = 위치(Where)가 아닌 인격(Who):
하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자신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 우편의 구약적 배경 (시편 110:1-2):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너는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라”
- 이사야가 보았던 현실 (이사야 6:1-3)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 그리스도 중심 연합: 사랑 안에서의 순종 (How does this reveal Christ?)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므로
...?” (요 5: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30)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15:10)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나 ⇔ 주님)

2)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려면, 억압이나 의무가 아닌 주님과
의 친밀한 관계(Being)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 (마 5:4)

4. 실제 이야기: 의무가 아닌 '공홀'에 끌리는 삶 (What does this look like?)

- [개인 간증]:하나님의 사랑과 공홀이 마음을 붙드실 때,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며 움직이게 되는 경험.
- [역사적 예화] 18세기 모라비안 선교운동
선교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머물렀고, 그 사랑이 그들을 붙들었을 때,비로소 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의무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에 붙들려살아가는 삶입니다.”

5. 컨퍼런스 적용: 언약궤를 대했던 세 공동체

하나님을 공동체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의 실제 모습을 성경 속 언약 궤의 역사로 비교해 봅니다.

구분	엘리 제사장 시대	웃사의 시대 (아비나답 집)	오벧에돔의 집
태도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음	익숙함 속에 경외심을 잃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삶을 내어드림
마음의 방향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관리함"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신앙의 모습	불순종과 이기적 이용	익숙함 속의 형식적 종교성	임재를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감
결과	언약궤를 빼앗김	거룩함 앞에 심판을 경험함	온 집과 가문, 후손이 복을 받음
삶의 중심	나(Self)	나(Self)	하나님(God)

6. 결단과 기도 (How will we respond?)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더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에 붙들려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Note



강사 : 박용부 선교사 (실행이사)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삶
주제말씀 : 골로새서 3:1-4

“하늘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강의 중에는 핵심 문장과 빈칸만 따라오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집에서 천천히 다시 읽어 보십시오.

01 본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새 신분 먼저 사랑받은 사람 하늘의 가치를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아버지의 가치를 배웁니다. 골 3:1, 3-4	찾으라 삶의 방향 시간·물질·관계·남은 생애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정렬됩니다. 골 3:1	생각하라 판단의 기준 무엇이 옳고 중요하며 먼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그리스도께 둥니다. 골 3:2
---	--	--

02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

아버지의 뜻 “내가 원하는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요 4:34	한 영혼 숫자보다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긍휼히 보입니다. 마 9:36; 눅 15:4-7
십자가의 사랑 높은 의자보다 수건을, 지배보다 내어 줌을 택합니다. 빌 2:5-8; 요 13:14-15	하나님 나라 내 계획에 하나님을 더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립니다. 마 6:33

한 문장으로 기억하기

“가치의 변화는 소중한 것을 억지로 버리는 일이 아니라,
더 귀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가치가 삶에 들어올 때

억지로 손을 떠는 일이 아니라, 더 귀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

간증에서 붙들 문장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제 눈을 바꾸셨습니다.”

빛이 사라지기 전에 잃은 것만 보던 눈이 남아 있는 은혜를 보았고, 불평하던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돌아왔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 형편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03 내 삶을 비추는 세 개의 거울

인정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가, 이미 사랑받았기에 자유롭게 섬기는가?

갈 1:10; 롬 8:15-16

자리 높은 의자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수건을 드는가?

막 10:43-45; 요 13:14-15

성과 숫자를 먼저 보는가, 이름을 가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가?

고전 3:6-7; 눅 15:4-7

04 하늘의 가치를 가진 선교 공동체의 네 질문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몇 명이 모였는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했는가?
우리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갔는가?

05 나의 두 문장 결단

지금까지 나는 _____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_____이/가 더 귀하게 보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우리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성과보다 한 영혼을,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강사 : 박경숙 팀장 (시니어선교한국)

- **본문 말씀:** 잠언 31:10~31 (핵심구절: 23절)
- **강의 목표:** 장차 통치자와 심판 주로 오실 신랑을 둔 신부로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늘의 가치로 정렬할 것인가?

I. 서론 및 도입 (Introduction)

1. 인사 및 강의 열기

- **핵심 구절 봉독:**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잠언 31:23)
- **핵심 질문:** “장차 통치자와 심판 주로 오실 신랑을 둔 신부인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 잠언 31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우리의 오해:** 집안 살림, 부동산, 비즈니스, 남편의 성공까지 완벽히 해내는 '슈퍼우먼'의 율법적 기준처럼 보여 높은 벽을 느낌.
- **성경적 진실:** 내 능력과 성취를 증명하는 완벽함이 아닌, 이미 신랑의 사랑을 받은 신부가 그 사랑으로 일상을 정렬해 나가는 '사랑의 초대장'.

II. 본문 제시 및 해석 (Exposition & Interpretation)

1. 본문 제시 (What does the text say?)

- 부지런함, 지혜, 가정을 돌봄, 금홍 베품의 삶을 사나, 성경의 핵심은 여인의 단독 능력이 아닌 갑자기 언급되는 '남편의 영광(23절)'에 연결됨.
- **열매의 원리:**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낸 한 사람의 삶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열매를 맺음.

2. 본문 해석 (What does it mean?)

- 원어 '하일(חַיִל)'의 정의: 단순한 도덕적 바름을 넘어 힘, 능력, 용맹함, 유력함, 가치 있음을 의미.
- 현숙한 여인('에세트 하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가치 있고 강한 사람.

■ 현숙함('하일')의 5가지 모습

구분	본문 구절	핵심 메시지 및 구체적 삶의 모습
① 여호와 경외	30절	[중심구절] 모든 현숙함의 근원, 외모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② 신뢰 세우기	11~12절	관계 안에서 안심을 주는 존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정렬된 삶
③ 청지기 충성	13~19절	소유와 능력을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과 자원을 섬기는 데 사용 (연관: 달란트 비유)
④ 금홍 베풀	20절	시선이 자기 가정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이웃에게로 향함(연관: 일만 달란트 탕감 비유)
⑤ 생명의 언어	26절	단순 지식이 아닌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인애의 법과 지혜

3. 성경 속 '하일(חַיִל)'의 실재 인물

- 룻 ('에세트 하일'): 이방 과부, 가난, 소외된 자의 환경 속에서도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신실한 믿음과 사랑. (룻 1:16, 3:11)
- 보아스 ('이쉬 하일'): '하일'은 여성 전용 덕목이 아님. 자신의 부와 힘을 약자(룻, 나오미)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함. (룻 2:1)

III. 그리스도 중심의 연결 (Gospel & Christ-Centered Application)

-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백성이자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임. 신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이심.
- 순서의 은혜: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사랑을 받은 신부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
- 신부의 목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존귀하게 하는 것.

IV. 실제적 간증 및 증언 (Personal Testimony)

- **결핍의 과거:** 어린 시절(3세) 부모님의 질병으로 보육원에서 성장하며 형성된 깊은 불신과 거절감.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는 상처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림.
- **말씀과의 만남:** 8개월간 아가서를 묵상하며 들려온 신랑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여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아름답게 꾸며 가시는 은혜를 수용함.
- **변화된 섬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는 섬김에서,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신랑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참 자유로 이동.

V. 컨퍼런스 적용 및 결단 (Application & Response)

- **선교적 삶:** 업적이나 사역보다 우리의 성품과 존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교임.
- **삶의 현장(성문):** 가정, 일터, 교회, 사역의 장소에서 다시 오실 왕의 통치와 가치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청지기가 되는 것.

기도 및 결단 제목

- 내 힘과 성취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욕망을 내려놓게 하소서.
- 어떤 신부로 살아가며, 하늘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받은 신부로 신랑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마무리 기도문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먼저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게 하옵소서. 신뢰를 세우고, 충성되게 성실하며,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신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오늘 삶의 현장(성문)에서 하늘의 가치를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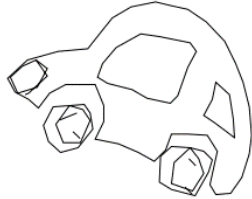
Note



강사 : 김영휘 목사/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실행이사)

<서론>

“정렬?” “휠 얼라인먼트”(Wheel Alignment)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정렬된 삶이란?

단순히 _____을 얻는 것을 넘어 그의
삶의 _____과 가치관과 그리고 일상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_____과 뜻에 맞
추어 바로잡아 감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_____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강의 순서>

I 부 골3:1-10 주제 말씀의 묵상

II 부 선교적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삶으로의 초대

1. 시니어 개인적인 준비

2. 시니어 공동체의 실현

* 시니어의 하루일과표 예시

III 부 결론: 초고령화 시대를 넘어선 한국교회의 미래

I 부 골3:1-10 주제 말씀의 묵상

1. ‘위의 것을 찾으라.’(1-2절)

위의 것으로의 ‘정렬’(Alignment)

비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정렬이 틀어진 상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정렬이 된 상태)

적용 및 사례

2.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정렬된 모습(3-10절)

옛 사람 =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

새 사람 =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

[옛 사람의 모습, 5-6, 8, 9절]

[새 사람의 모습, 10절]

- 자아의 정렬
- 관계의 정렬
- 공동체의 정렬
- 적용 및 사례

- 새로운 삶의 정렬
- 그 의미는?
- 적용 및 사례

II 부 선교적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삶으로의 초대

이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다.

1.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정렬된 시니어 개인의 준비

“정렬”(Wheel Alignment)된 삶의 모습

- 1) 내려놓음/ 주도권 이양
- 2) 말씀과 기도로
- 3) 비움 뒤에
- 4) 일상의 터전에서
- 5) 축적된 선교적 자산을
- 6) 끊임없이
- 7) 남은 인생을
- 8) 디지털 통로/ 은사를

[한 마디의 결론]

작은 원의 중심? 하나님 나라

큰 원의 여러 요소들? 직장/가정/재능/시간/물질/지혜/관계/생명 등

키워드: 우선순위/ 재편성 = “통합”(Integrity)

2.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정렬된 시니어 공동체의 실현

- 1) 초고령화 시대의 한국 상황
- 2) 시니어 공동체의 핵심 사명과 방향: “정렬”(Wheel Alignment)된 참 모습 = “정체성”
“정체성의 양면” - 핵심적 가치(Core Identity): 존재이유 - 부동적인 것
재정립(Re-Identity): 정체성의 진화 - 상황에 맞추어 변동
→ 키워드: “연속성”(우리는 원래 X를 하던 곳이었기에 이제 그 유산을 이어 Y를 한다)
결과: 역동적 성장/ 그러나 반대이면 퇴보 및 도태 예) 닌텐도 회사
- 3)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정렬된 시니어 공동체의 실현

-
-
-

- 시니어의 하루일과표 예시 - 하나님 나라 가치로 맞춘 시니어 삶의 거룩한 리듬

III 부 결론: 초고령화 시대를 넘어선 한국교회의 미래

“초고령화 시대는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귀중하고 깊은 ‘황금빛 그러나 동결된 _____’을 풀어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_____의 기회이다. 그러므로 시니어 선교공동체와 개인은 자신의 옛 자아와 영적 교만과 과업과 성취를 내려놓고, 오직 _____의 가치로 온전히 삶을 정렬하여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화려했고 열매 맺는 _____적 황금기로 꽃 피우는 세대가 될 때 한국 교회의 _____가 보장될 것이다.”

〈질문〉 “당신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소유의 언어? VS 내 존재의 언어?

〈시 한편 소개〉

단 하나의 빛

세상이 쥐어준 이력과 타이틀
그 소유의 겉옷을 내려놓고
비로소 존재의 자리로 걸어간다.

다음 세대들의 손을 잡고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가는 길
그 동역 안에서 가슴은 늘 설렌다.

목회와 선교의 거친 광야
수많은 기다림과 눈물로 점철된
가쁜 숨결, 그러나 진실 하나.

지구촌의 수많은 인구 속에서
주님만이 아시는 단 하나뿐인 빛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거룩한 뜻 안에서의 만남의 온기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

그저 존재한다.

김 영휘

[토의 나눔의 주제]

1. 주제성구와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정렬된 삶에 대한 정의를 본인 자신의 표현으로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2. 시니어 세대들이 이 시대의 선교적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함에 대하여 말씀 들었는데, 이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본인 자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3.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정렬된 삶을 살기 위해 시니어선교한국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말해 주십시오.
4. 3의 질문에 이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정렬된 개인의 준비에 대해 그리고 혹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te



아가서 아침 묵상 (2일 코스)

💡 나눔을 위한 팁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속삭일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아가서는 '신랑(예수님/하나님)'과 '신부(교회/성도)'의 대화입니다.

이 관점으로 함께 구절을 낭독한 뒤, 각자 5~7분 정도 아래의 두 질문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그에 따라 나눔을 진행합니다.

1. 오늘 구절 속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2.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침 묵상을 위한 조편성

퍼실리테이터

	1조	2조	3조	4조	5조
1	금수화	권혁일	박경숙	박용부	송치영
2	강명희	고병수	곽신	김경선	김드보라
3	김영휘	김의식	김정숙	김정혜	김주연
4	문병용	박상기	박성웅	박찬경	박천식
5	석종열	손명현	손미혜	안창규	염차배
6	이문숙	이복희	이상목	이순희	이정호
7	장영수	전정옥	정규옥	정명숙	정상기
8	최문철	최안순	한은희	허인옥	허종학
9					

	6조	7조	8조	9조	10조
1	이광연	이종훈	정동훈	최광성	황태기
2	김미영	김석철	김영준	김용화	김은가
3	김창익	김창진	이래은	김희순	동현명
4	박혜경	방충헌	백학	백수경	석금자
5	윤병섭	이금숙	이기덕	이동숙	김희선
6	이해숙	이홍남	임대영	임창희	장미연
7	정성섭	정찬설	정혜경	정희주	조희숙
8	황규원	황승구			
9					

아가서 1:4

[4]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 묵상 포인트

선교의 출발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의 속도와 결과에 앞서 주님과 친밀함 안에서 초대받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방으로 이끌림 받은 사람은 의무감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 가이드 (사역의 동력: 의무에서 사랑으로)

단어의 의미: 침궁(chamber), 친밀함의 자리, 대면하는 자리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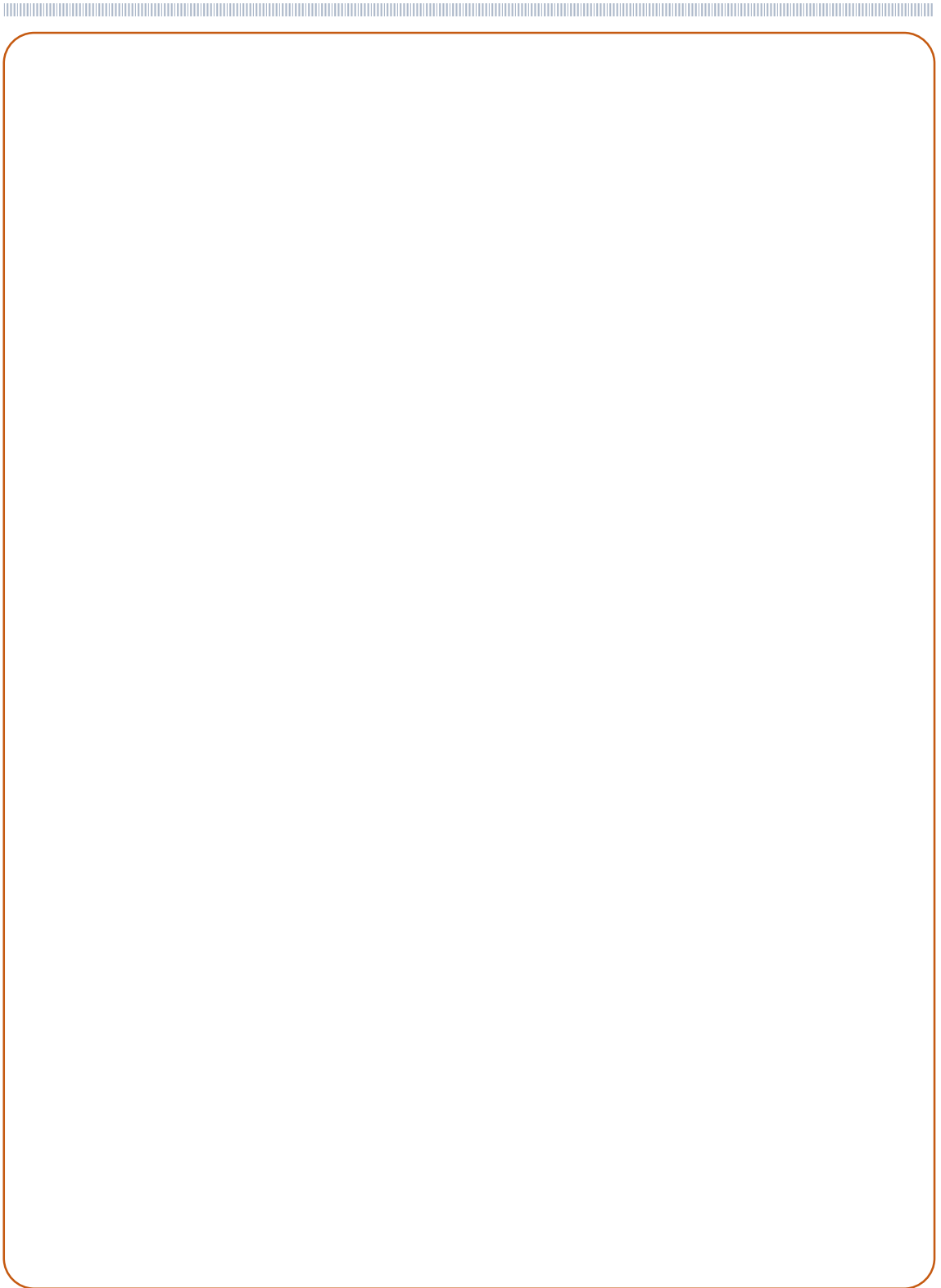
· 해설: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표현은 공개적인 사역의 자리보다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는 고백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분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 메시지: 선교 및 사역 현장에서 가장 오래 달릴 수 있는 힘은 책임감만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 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을 위해 달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이끌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포인트: 오늘 아침, “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보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사역의 동력이 소진될 의무가 아니라 다시 채워지는 사랑이 되도록 주님 앞에 머뭅니다.

[메모]

묵상 Note



아가서 2:10

[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 묵상 포인트

주님은 신부를 향해 먼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정체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함께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자는 초대입니다. 지침과 두려움,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 가이드 (새로운 계절을 향한 초대)

· 해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호칭 뒤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부르심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정죄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 메시지: 사역 현장에서 때로는 환경과 사람, 반복되는 사역으로 인해 영혼이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왜 멈췄느냐?”라고 몰아붙이기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며 다시 함께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 포인트: 오늘 내가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디이며, 주님과 함께 가야 할 다음 걸음은 무엇입니까?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새로운 사역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기보다, 주님과 다시 함께 걷는(정렬) 계기가 되도록 묵상합니다.

[메모]

강사 : 양회성 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순회선교사)

1. AI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 문명의 흐름과 함께 흐르는 선교 패턴
3.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AI
4. AI시대! 사람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5. AI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사람들
6. 어느 선교사의 하루
7. AI 활용 몇가지
 - 1) 프롬프트 활용
 - 2) 동시 통역
 - 3) 10분만에 내 자서전을 노래로 만들기
 - 4) PPT

집례자 : 최광성 목사 (천안시니언교회 회장)

1. 찬송 : 198 장

1)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2)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만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심령 채우소서.

2. 성경봉독 :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 요한복음 6장 51절 - 이정호 목사

2) 고린도전서 10장 16-17 - 황규원 목사

3. 초청의 말씀 : 하나님을 믿고 예수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4. 회개의 기도 : 우리 다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5. 용서의 말씀 :

1) 요한일서 1장 8-9절 - 이기덕 목사. 2) 요한일서 2장 1-2 절-김창익

6. 성찬분급 ; 집례자와 보좌위원들 -회중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찬송합니다

찬송가 - 143장 다같이

1) 먼저 떡을 받아 드신 다음 잔을 받아드립니다.

7. 찬송가 - 198장 3. 4절

3절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에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4절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둔 영의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8. 감사기도 -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시고

시니언선교한국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니어선교한국 사명선언문

시니어선교한국 운동은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고백하며,
이 운동의 시작과 진행과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 공동체이다.

우리는 선교 기관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성과보다 순종을 우선하는 청지기 공동체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시니어 세대를 제자로 세우고 선교적 삶으로 준비시켜
교회와 열방을 섬기도록 파송하며, 다음 세대를 신앙과 사명의 유산으로 세운다.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성령 인도,
교회와의 협력과, 섬김의 원리 위에서 수행한다.

우리는 이 사명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을 다짐한다.
아멘!

시니어선교한국 운동 공동체 강령

이 공동체 강령은

우리를 더 유능하게 만들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무르게 하는 삶의 울타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정한다

1.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멈춘다

우리는 속도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반드시 멈추어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둔다.

2. 우리는 성과 언어를 경계한다

숫자, 규모, 확장, 영향력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한다.

열매는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3. 우리는 중단 가능성을 열어 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역이 축소되거나 멈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지속보다 순종을 우선한다.

4. 우리는 연륜을 주권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경험과 지혜는

결정권이 아니라 섬김의 자원이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자로 서기를 선택한다.

5. 우리는 기도를 결정의 부록으로 두지 않는다

기도는 이미 정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결정이 형성되는 자리다.

기도 없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

6.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기다린다

즉각적인 결과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라고 있는지를 살핀다.

보이지 않는 열매를 존중한다.

이 강령의 목적

이 공동체 강령은

사명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드는 기준이다.

우리는 더 멀리 가는 공동체가 되기보다,

더 자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2026 글로벌 컨퍼런스 기도 포인트

①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기도

- 1)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 2)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도록
- 3) 하늘의 가치로 삶이 새롭게 정렬되도록
- 4)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도록

② 강사분들을 위한 기도

- 1) 강사진:정현구/금수화/박용부/박경숙/김영휘/양희성/최광성/이종훈
- 2) 성령께서 말씀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 3) 강사분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도록
- 4)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도록
- 5)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③ 운영팀과 찬양팀을 위한 기도

- 1) 성령께서 모든 찬양과 섬김을 친히 인도하시며, 섬기는 이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 2)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 3) 영적으로 먼저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 4) 찬양과 섬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④ 컨퍼런스 전체를 위한 마무리 기도

- 이번 2026 글로벌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과 순서 위에 성령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참석자 모두의 실제적인 삶의 방향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님 중심, 하늘의 가치로 삶이 다시 정렬되어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 강사와 찬양팀과 운영팀을 비롯하여 모든 섬김이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되어 섬기고,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